문학 개념 이해·적용

문학 적용 12

수필의 경험·생각과 표현

대치동 재우쌤

차례

1장 수필의 성격과 짜임 3쪽
확인 문제 · 1장 9쪽
2장 경험에서 생각의 변화로 12쪽
확인 문제 · 2장 19쪽
3장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과 근거 22쪽
확인 문제 · 3장 28쪽
종합 적용 A·B 32쪽
정답·해설 37쪽

색 표지 읽는 법

남색 밑줄 글쓴이가 겪은 일·본 것

금색 바탕 그 일에 붙인 생각·느낌·깨달음

색 표지는 개념 설명의 창작 예시에만 있습니다. 확인 문제의 지문에는 표지가 없습니다.

예시·지문·그림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 만든 창작 자료입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수필, 이렇게 읽어요

바탕 · 수필은 어떤 글인가?

E01 수필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긴 기록인가요?
E02 형식이 자유로우면 글의 짜임도 없나요?
E03 평범한 물건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나요?
E04 '나'가 나오면 모두 개성적이고 고백적인 수필인가요?

질문 ① 무엇을 겪고 보았나?

E06 겪은 일과 그 일을 보며 한 생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E07 짧은 일화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만 넣나요?

질문 ②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

E05 깨달음을 쓰려면 꼭 '~해야 한다'고 끝내야 하나요?
E08 옛일을 떠올리면 생각도 반드시 달라진 건가요?

질문 ③ 어떻게 드러냈나?

E09 생각을 직접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E10 제목·반복·대비의 효과는 어떤 근거로 설명하나요?

점검 ·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E11 글에 쓰인 것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1장 수필의 성격과 짜임

지금 여기 바탕 질문 ① 질문 ② 질문 ③ 점검

E01 수필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긴 기록인가요?

짧은 답 수필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관찰에 생각을 담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산문입니다. 수필 속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한 줄 공식 **실제 경험·관찰 + 글쓴이의 생각 + 자유로운 표현 = 수필**

소설의 '나'는 작가가 만든 서술자이고, 수필 속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다만 글쓴이는 겪은 일 가운데 일부를 골라 다듬어 쓰므로, 경험을 빠짐없이 옮긴 기록과는 다릅니다. 문손잡이를 놓기 '어려웠다'처럼 느낌을 담은 표현도 실제 힘의 크기와 구별해 읽습니다. 수필은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비전문적 성격도 지닙니다.

창작 예시 겪은 일·본 것 남색 밑줄 그 일에 붙인 생각 금색 바탕

나는 이사하던 날 마지막까지 빈 방을 둘러보았다. 짐은 모두 나갔는데, 문손잡이를 쉽게 놓지 못했다. 문손잡이를 놓는 일은 상자 하나를 드는 것보다 어려웠다.

예시 뜯어보기

수필과 소설 · 경험에 붙인 생각

기준	수필	소설
바탕	글쓴이의 실제 경험·관찰	작가가 꾸며 낸 이야기(허구)
글 속 '나'	글쓴이 자신	작가가 만든 서술자(인물)
짜임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구성	사건·인물·배경을 엮어 구성

수필의 비전문성: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소설을 전문 작가만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겪은 일 · 본 것
짐이 나간 빈 방을 둘러보고 문손잡이를 쉽게 놓지 못함

+

붙인 느낌
문손잡이를 놓는 일은 상자 하나를 드는 것보다 어려웠다.

근거를 연결하면 마지막의 '어려웠다'는 앞의 행동에 담긴 아쉬움을 읽게 합니다. 이 느낌을 상자의 무게와 손잡이를 놓는 힘을 비교한 측정값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수필은 실제 경험을 쓰므로 겪은 일과 대사를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고쳐요
글쓴이가 실제 경험 가운데 무엇을 고르고 어떤 느낌을 붙였는지 함께 읽습니다.

E02 형식이 자유로우면 글의 짜임도 없나요?

짧은 답 자유로운 형식은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편의 글 안에서는 관찰·회상·생각이 내용에 맞는 관계와 순서로 연결됩니다.

한 줄 공식 **형식이 자유롭다 ≠ 짜임이 없다**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해서 문단이 아무 관계 없이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흐름대로 제시하면 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돌아오는 등 시간 순서를 바꾸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문단의 순서를 셀 때는 실제로 일이 일어난 순서와 글에 놓인 순서를 나누어 봅니다. 순서를 바꾸어도 앞의 관찰이 뒤의 기억이나 생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창작 예시

〔가〕 오늘 손잡이가 닳은 찻잔을 꺼냈다.

〔나〕 처음 설거지를 맡았을 때 그 잔을 떨어뜨릴까 두려워했던 일이 떠올랐다.

〔다〕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내 손을 돌아본다.

예시 뜯어보기

시간 순서와 글에 놓인 순서

실제로 일이 일어난 시간

과거 · 설거지가 서툴던 날 → 현재 · 찻잔을 꺼낸 오늘

글에 놓인 순서

현재	과거	현재
① 오늘의 관찰 닳은 찻잔을 꺼냄	② 과거의 기억 설거지하던 날을 떠올림	③ 오늘의 성찰 익숙해져 함부로 다룬 내 손을 돌아봄

시간 흐름대로 놓음 = 순행적 구성

현재·과거를 오가며 놓음 = 역순행적 구성

근거를 연결하면 과거 이야기가 중간에 있어도 찻잔을 대하는 예전과 지금의 태도가 서로 연결됩니다. 문단이 시간순으로 놓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짜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유 같은 사진으로 만드는 다른 앨범

비유	개념 대응	비유의 한계
찍은 날짜순으로 놓을 수도 있고, 지금의 사진 옆에 어린 시절 사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배치 순서는 달라도 비교하거나 떠올리게 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수필에서는 사진의 배치 대신 문장·문단의 관계를 근거로 짜임을 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과거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갔으므로 짜임 없이 쓴 글이다.

이렇게 고쳐요

시간 순서와 글의 제시 순서를 구별하고, 회상이 현재의 생각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E03 평범한 물건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나요?

짧은 답 일상 경험·사물·자연·여행·독서·사회 현상 등 다양한 대상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의 이름보다 글쓴이가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을 연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줄 공식 **소재의 이름 → 주목한 특징 → 글 속에서 생긴 의미**

운동화가 나온다고 해서 주제를 곧바로 노력이나 우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글쓴이가 운동화의 어떤 특징에 주목했는지 먼저 봅니다. 닳은 밑창에 붙인 뜻과 풀린 끈에 붙인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작 예시

〔가〕 나는 운동화의 닳은 밑창을 보았다. 그 자국이 그동안 걸은 길을 모아 둔 기록 같았다.

〔나〕 다른 글쓴이는 운동화의 풀린 끈을 보았다. 출발 직전 늘 기다려 주던 친구가 떠올랐다.

예시 뜯어보기

운동화 하나 · 주목한 특징과 붙인 의미

같은 소재 · 운동화

〔가〕	〔나〕
주목한 특징 닳은 밑창	**주목한 특징** 풀린 끈
붙인 의미 그동안 걸은 길을 모은 기록	**붙인 의미** 출발 직전 기다려 주던 친구

근거를 연결하면 ‘기록’과 친구에 대한 기억은 운동화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글쓴이가 골라 본 특징이 다르므로 붙인 의미도 달라집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운동화를 소재로 골랐으므로 주제는 반드시 우정이다.

✓ 이렇게 고쳐요

밑창·끈 등 무엇에 주목했으며 어떤 생각을 연결했는지 작품에서 확인합니다.

E04 ‘나’가 나오면 모두 개성적이고 고백적인 수필인가요?

짧은 답 개성적 성격은 글쓴이만의 시선이, 고백적 성격은 감추기 쉬운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데서 드러납니다. ‘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두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줄 공식 **개성적 = 나만의 시선 · 고백적 = 감추기 쉬운 속마음을 털어놓음**

개성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특이한 사건을 겪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물에서도 어떤 모습에 눈길을 주는지에 따라 나만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고백적 성격은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부러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밝힐 때도 나타납니다. 자기 행동을 적은 문장과 속마음을 털어놓은 문장을 구별합니다.

창작 예시

〔개성적 시선〕 계단 모서리가 반질반질했다. 내게는 사람들이 오르내린 시간이 거기만 빛나는 듯했다.

〔고백적 표현〕 친구의 발표를 듣고 손뼉을 쳤다. 그러나 친구가 칭찬받는 동안, 내가 준비한 종이를 더 크게 펼쳐 놓고 싶었던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시 뜯어보기

개성적 시선과 고백적 표현

개성적 · 나만의 시선	고백적 · 감춘 마음을 밝힘
본 모습 계단 모서리가 반질반질함	**겉으로 한 행동** 친구의 발표를 듣고 손뼉을 침
나만의 시선 사람들이 오르내린 시간이 거기만 빛나는 듯함	**스스로 밝힌 속마음** 내가 준비한 종이를 더 크게 펼쳐 놓고 싶었음

겉으로 한 행동	박수 뒤에도 남은 마음



왼쪽은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 오른쪽은 박수를 친 뒤에도 남아 있는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근거를 연결하면 첫 예시는 닳은 곳을 시간의 흔적으로 보는 시선에, 둘째 예시는 축하 뒤에 숨은 바람을 스스로 밝힌 데 주목합니다. 두 성격은 서로 구별되며 한 글에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유 빙산

비유	개념 대응	비유의 한계
물 위에 보이는 부분과 물 아래 감춘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겉으로 한 말·행동 / 감춘 속마음. 고백은 물 아래를 스스로 보여 주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빙산은 늘 물 아래가 더 크지만, 수필의 속마음이 겉보다 꼭 크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글에 '나'가 나오므로 고백적인 수필이다.

이렇게 고쳐요

'나'의 등장 여부가 아니라 감추기 쉬운 속마음을 털어놓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문제 1장 수필의 성격과 짜임

연결 개념 **E01~E04** (3~8쪽)

Q01 수필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찰한 대상의 정보는 담지만 그 대상에 대한 자기 생각은 덜어 낸다.
②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비유도 실제 사실을 그대로 알린다.
③ 글쓴이의 경험·관찰·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다.
④ 글쓴이가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Q02 수필의 자유로운 형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문단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 내용 사이의 연결도 사라진다.
② 현재의 관찰에서 과거 일을 떠올리는 구성도 가능하다.
③ 생각을 먼저 밝히고 그 생각이 생긴 경험을 뒤에 들려줄 수 있다.
④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아도 문단끼리 관계를 이룰 수 있다.

Q03 같은 사물을 소재로 삼은 두 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낡은 의자에 남은 흠집을 보며 가족이 함께 앉았던 시간을 떠올린다. B는 같은 의자의 한쪽 다리가 짧아진 모습을 보며 쓰임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한다.

① 의자의 낡은 정도만 비교하면 각 글의 중심 생각도 알 수 있다고 본다.
② 각 글이 의자의 어떤 특징에 주목하고 어떤 생각을 연결하는지 비교한다.
③ 소재가 같으므로 두 글의 중심 생각도 같다고 정한다.
④ 흠집은 어느 수필에서나 상처받은 마음을 뜻한다고 정한다.

Q04 다음 표현에서 고백적 성격을 읽을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친구의 수상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이름도 한 번쯤 불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① 친구를 축하한 행동만으로 속마음도 똑같았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② 자기 마음을 쓰면 모든 수필이 반드시 남과 다른 주제를 갖는다는 점.
③ 축하하는 말 뒤에 감추기 쉬운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밝힌다는 점.
④ '나는'이라는 말로 자기 행동을 서술한다는 점.

Q05 **수필을 읽을 때 글쓴이와 글 속의 ‘나’에 대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를 글쓴이 자신으로 읽되, 글에 쓰이지 않은 실제 사실까지 마음대로 덧붙이지 않는다.

② 소설의 ‘나’처럼 작가가 만든 서술자이므로 글쓴이 자신과 구별한다.

③ ‘나’가 경험을 썼으므로 글에 없는 날짜와 장소도 실제 사실로 보충한다.

④ 문장에서 ‘나’가 생략되면 그 문장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기지 않는다.

Q06 **글쓴이의 개성적인 시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생은 창문을 깨끗이 닦은 뒤 얼룩이 사라졌다고 기뻐했다. 나는 유리 한구석에 남은 작은 손자국을 보며, 동생이 발끝을 세워 닦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렸다.

① 동생이 기뻐했으므로 글쓴이도 얼룩이 없는 상태에만 주목한다.

② 남은 손자국을 동생의 애쓴 모습과 연결해 바라본다.

③ 작은 손자국을 보았으므로 이를 본 사람은 모두 같은 기억을 떠올린다.

④ 손자국은 언제나 게으름의 상징이므로 동생의 게으름을 드러낸다.

Q07 **다음은 어떤 수필의 흐름을 간추린 것이다. 그 짜임을 설명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버스 창가의 물방울을 본다 → 처음 혼자 버스를 타던 날을 떠올린다 → 그때 나를 기다린 사람을 이제는 내가 기다려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① 과거 일이 중간에 나왔으므로 문단 사이에 내용의 연결이 없다.

② 과거의 첫 버스 여행부터 오늘까지 시간 흐름대로 나열한 순행적 구성이다.

③ 현재의 생각을 먼저 밝힌 뒤 그 생각이 생긴 경험을 거꾸로 설명한다.

④ 현재의 관찰에서 과거 기억을 거쳐 현재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Q08 **고백적 성격이 드러난 부분과 그 마음이 생긴 경험을 지문에서 찾아, 자기 말로 간단히 쓰세요.**

반납할 책을 가방에 넣다가 친구가 그림을 그려 준 책갈피를 발견했다. 나는 그때 친구에게 들뜬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책갈피 같은 건 금방 잃어버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종이의 접힌 귀퉁이까지 펴서 따로 넣었다. 선물이 기쁘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고백적 성격이 드러난 마음	
마음이 생긴 경험	

2장 경험에서 생각의 변화로

지금 여기 바탕 **질문 ①** **질문 ②** 질문 ③ 점검

E05 깨달음을 쓰려면 꼭 '~해야 한다'고 끝내야 하나요?

짧은 답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 교훈적·성찰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꼭 '~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 공식 **겪은 일 → 내 판단·태도를 돌아봄 → 새롭게 보는 삶의 의미**

성찰은 거창한 교훈을 붙이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험 뒤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생각을 직접 쓰지 않아도 앞뒤 행동의 차이로 성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달라진 까닭은 앞의 경험과 이어 읽어야 합니다.

창작 예시

길을 묻는 사람에게 나는 아는 척하며 골목을 가리켰다. 길을 찾지 못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 뒤 다른 날 모르는 길을 질문받았을 때, 나는 가리키기 전에 휴대전화 지도를 먼저 열었다.



① 처음 행동



② 돌아본 계기



③ 달라진 행동 · 다른 날

처음의 안내와 돌아온 사람, 다른 날 지도를 먼저 확인하는 모습을 이은 그림입니다.

근거를 연결하면 '아는 척'과 '먼저 열었다'를 이어 보면 정확히 알아보고 답하려는 쪽으로 달라진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동만 떼어 읽으면 무엇을 돌아보았는지 놓칩니다.

비유 거울

비유
경험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개념 대응
겪은 일을 통해 이전의 판단과 태도를 돌아봅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거울은 모습을 비추지만, 성찰은 비추어 본 뒤 판단하고 태도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마지막에 '~해야 한다'가 없으므로 성찰이 없다.

이렇게 고쳐요
앞뒤 판단이나 행동의 차이를 찾아, 경험이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06 겪은 일과 그 일을 보며 한 생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짧은 답 경험·관찰은 글쓴이가 겪은 사건이나 주목한 대상이고, 생각은 그 경험과 대상에 붙인 판단·감정·의미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한 줄 공식 **겪은 일(무엇이 일어났나) + 붙인 생각(어떻게 받아들였나)**

겪은 일과 그 일에 붙인 생각은 한 문단 안에 이어 나올 수 있습니다. 어깨가 젖었다는 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경험을 부끄럽게 느끼거나 함께 쓴다는 뜻을 새로 풀이한 부분은 그 일에 붙인 생각입니다.

창작 예시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낯선 어른과 우산 하나를 함께 썼다. 우산을 그분 쪽으로 기울이자 내 바깥쪽 어깨가 젖었다. 나는 그동안 우산을 혼자 쓰듯 내 쪽으로만 당겼던 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함께 쓴다는 것은 내 쪽을 조금 내어 주는 일이었다.

예시 뜯어보기

우산을 함께 쓴 날 · 겪은 일과 붙인 생각

① 경험 · 겪은 일
낯선 어른과 우산 하나를 함께 썼다.

② 경험 · 겪은 일
우산을 그분 쪽으로 기울이자 내 바깥쪽 어깨가 젖었다.

③ 생각 · 느낌과 판단
나는 그동안 우산을 혼자 쓰듯 내 쪽으로만 당겼던 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함께 쓴다는 것은 내 쪽을 조금 내어 주는 일이었다.

판별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났나?
= 경험·관찰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 생각



낯선 어른 쪽으로 기울인 우산과 바깥쪽 어깨에 내리는 비를 보여 줍니다.

근거를 연결하면 젖은 어깨는 일어난 일이고, 부끄러움과 함께 쓰는 일에 새로 붙인 뜻은 그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비유 사진과 사진 아래 메모

비유
사진은 일어난 일을, 그 아래 메모는 그 일에 붙인 생각을 보여 줍니다.

개념 대응
경험·관찰 / 그 일에 붙인 판단·느낌을 나누는 데 비깁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메모는 사진 아래에 붙지만, 수필의 생각은 경험보다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함께 쓴다는 것은 내 쪽을 조금 내어 주는 일이었다'도 그날 일어난 일로 읽는다.

이렇게 고쳐요
일어난 일을 쓴 문장인지, 그 일에 붙인 판단·느낌을 쓴 문장인지 구별합니다.

E07 짧은 일화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만 넣나요?

짧은 답 일화는 생각이나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재미를 줄 수도 있지만, 글쓴이의 생각을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 줄 공식 **짧은 사건·행동 → 어떤 생각을 보여 주는가**

일화는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보여 주어 추상적인 생각을 붙잡게 합니다. 짧은 이야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행동과 뒤에 붙인 생각을 연결합니다. 일화 하나가 뒷받침하는 생각은 읽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나 평생 행동까지 딱 잘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창작 예시

친구에게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그날을 떠올리면, 겉으로 전한 말과 실제 마음이 꼭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예시 뜯어보기

일화 속 행동이 생각을 받쳐 줍니다

글쓴이의 생각
"겉으로 전한 말과 실제 마음이 꼭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받쳐 줌

일화 속 행동
친구에게 "괜찮아"라고 메시지를 보냄
그 뒤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봄

근거를 연결하면 짧은 말로 끝낸 뒤에도 화면을 거듭 본 행동이 있어 마지막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답을 늦춘 이유는 이 일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유 설명서의 사용 예시 그림

비유
사용 예시 그림은 '이렇게 쓰세요'라는 설명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줍니다.

개념 대응
일화도 글쓴이의 생각이나 인물의 특성을 짧은 상황·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예시 그림 하나로 모든 쓰임을 알 수 없듯, 일화 하나로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사건이 작고 등장인물이 적으므로 일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요
사건의 크기보다, 짧은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나 특성을 보여 주는지 살핍니다.

E08 옛일을 떠올리면 생각도 반드시 달라진 건가요?

짧은 답 연상은 한 대상에서 관련 기억·생각이 이어지는 것이며, 회상은 지난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는 대상을 보는 생각(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줄 공식 **연상: 대상 → 관련 기억·생각 / 인식의 변화: 처음 판단 ≠ 나중 판단**

지난 일을 떠올리는 회상이 어떤 대상에서 시작되면 연상의 한 경우가 됩니다. 연상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반드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변화까지 읽으려면 같은 대상에 대한 처음과 나중의 판단이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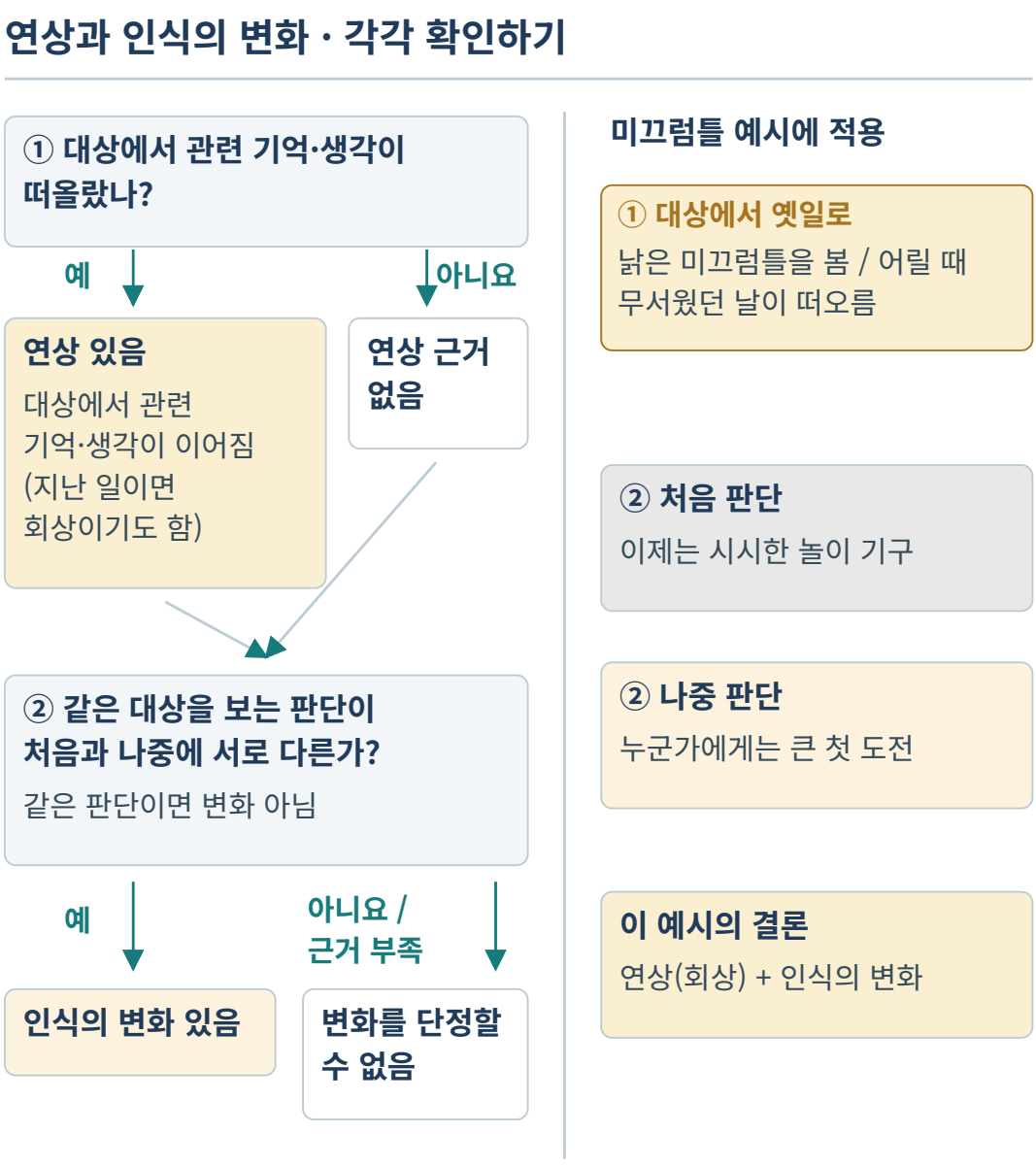
다른지 확인합니다. 두 판단이 모두 적혀 있어도 같다면 변화의 근거가 아닙니다.

창작 예시

놀이터의 낡은 미끄럼틀을 보았다. 처음에는 이제 시시한 놀이 기구라고 여겼다. 어릴 때 저 꼭대기를 무서워했던 일이 떠올랐다. 곁에서 어린 동생이 계단을 잡고 겁내고 있었다. 나는 내게는 낮아 보이는 곳도 누군가에게는 큰 첫 도전일 수 있음을 알았다.

회색 처음 판단 크림 상자 나중 판단

예시 뜯어보기



연상이 없어도 경험 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연결하면 옛 두려움을 떠올린 부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동생의 반응을 보며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판단합니다. 떠오른 기억과 달라진 생각의 근거를 따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유 서랍과 안경

비유

서랍이 열려 옛 물건이 보이는 것과, 안경을 바꿔 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나눕니다.

개념 대응

연상 = 관련 기억·생각이 떠오름 / 인식의 변화 = 대상을 보는 생각이 달라짐.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서랍이 열리면서 안경까지 바뀌듯, 연상과 인식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어린 시절을 떠올렸으므로 지금 생각도 반드시 달라졌다.

이렇게 고쳐요

연상·회상과 인식의 변화를 구별하고, 달라진 처음·나중 판단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 문제 2장 경험에서 생각의 변화로

연결 개념 **E05~E08** (12~18쪽)

Q09 다음 글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성찰이 가장 분명히 나타난 문장은?

㉠ 나는 교실 어항에 먹이를 두 번 주었다.
㉡ 바닥에는 먹지 않은 먹이가 남아 있었다.
㉢ 먹이 봉지를 보니 처음 수족관에 갔던 날이 떠올랐다.
㉣ 좋아할 거라며 많이 주기만 한 내 방식부터 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① ㉠ ② ㉡ ③ ㉢ ④ ㉣

Q10 밑줄 친 두 부분을 구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급식에서 먹을 만큼만 덜었더니 오늘은 음식이 남지 않았다. ㉡ 내가 먹을 양을 아는 것도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① ㉠은 겪은 일이고, ㉡은 그 일에 붙인 생각이다.
② ㉠은 생각이고, ㉡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경험이다.
③ 두 부분 모두 행동이 언급되므로 경험만 제시한다.
④ 두 부분 모두 '나'에 관한 내용이므로 감추기 쉬운 속마음을 고백한다.

Q11 다음 일화가 뒷받침하는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육관을 나서다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다. 먼저 집에 간 줄 알았던 친구가 관중석 밑에서 그 장갑을 들고 나왔다. 친구는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내 손에 장갑을 쥐여 주었다. 도움은 꼭 자신을 드러내는 말과 함께 오지는 않았다.

① 말로 알리지 않아도 행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친구는 칭찬을 받고 싶다고 직접 밝혀 도움의 목적을 설명했다.
③ 이 일을 겪은 뒤 글쓴이는 어떤 도움도 말로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④ 고맙다는 말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다.

Q12 수필에 쓰인 일화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작고 짧은 사건도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② 일화 속 말과 행동을 앞뒤의 생각과 연결해 읽을 수 있다.
③ 재미를 주는 일화도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
④ 한 번의 일화만 읽으면 인물의 모든 상황과 평생의 성격을 알 수 있다.

Q13 다음 부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각의 연결은?

> 새 연필을 깎는 냄새가 나자, 예전 도서관 책상에서 숙제를 하던 저녁이 떠올랐다.

① 숙제를 싫어하던 태도가 숙제를 좋아하는 태도로 바뀐다.
② 현재의 감각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연상이 이어진다.
③ 옛 기억이 떠올랐으므로 연필을 보는 생각도 반드시 달라졌다.
④ 과거 기억이 현재 감각을 먼저 일으켰으므로 생각의 연결이 과거에서 현재로 향한다.

Q14 다음 글에서 인식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할머니의 장보기 메모는 글씨가 삐뚤어 읽기 어렵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작은 칸마다 내가 못 먹는 재료를 빼 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제 그 종이를 보면 글씨의 모양보다 나를 챙긴 마음이 먼저 보인다.

① 읽기 불편한 글씨로만 보던 데서 자신을 챙긴 마음도 보게 된다.
② 할머니가 글씨를 반듯하게 고쳐 썼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도 달라진다.
③ 처음부터 자신을 챙긴 마음을 중시했고 끝까지 같은 생각이다.
④ 메모를 보며 옛일만 떠올렸으므로 대상을 보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Q15 두 글의 연상·회상과 인식의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보리차 냄새가 나자 외갓집에서 여름을 보내던 날이 떠올랐다. 툇마루에서 마시던 차도 이 냄새였다.
> 〔나〕 나는 삐뚤어진 나무 받침을 못 만든 물건이라고 여겼다. 받침을 보다가 처음 톱질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혔던 날이 떠올랐다. 이제는 삐뚤어진 자리가 그때의 첫 시도를 남긴 흔적으로 보인다.

① 두 글에 과거 일이 있으므로 두 글 모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② 〔가〕는 옛일을 떠올렸지만 현재 대상에서 시작하지 않아 연상은 아니다.
③ 두 글에 대상에서 시작한 회상이 있고, 〔나〕에는 인식의 변화도 있다.
④ 〔나〕에는 인식의 변화가 있으므로 연상이나 회상은 나타날 수 없다.

Q16 **처음과 나중의 판단을 비교하고, 생각이 달라진 계기를 쓰세요.**

나는 낡은 공책을 모두 버리려 했다. 그런데 동생은 내가 못 푼 문제 옆에 남겨 둔 물음표를 보며, 자기도 거기에서 막혔다고 말했다. 함께 답을 찾고 나서, 나는 틀린 흔적을 지워야 할 얼룩만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처음 판단	
나중 판단	
변화의 계기	

3장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과 근거

지금 여기 바탕 질문 ① 질문 ② **질문 ③** 점검

E09 생각을 직접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짧은 답 직접 진술(말하기)은 글쓴이가 자기 생각·깨달음을 문장으로 밝히는 방식이고, 간접적 제시(보여 주기)는 행동·장면 등에서 뜻을 짐작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 글에 두 방식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줄 공식 **직접 진술 = 생각을 밝힌 문장 / 간접적 제시 = 행동·장면에서 읽는 뜻**

생각을 밝힌 문장이 있는지, 행동·장면에서 뜻을 읽어야 하는지 살핍니다. '알았다'나 '생각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무엇을 알거나 생각했는지 문장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글쓴이 자신의 직접 진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설에서 인물을 직접 제시·간접 제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창작 예시

〔가〕 나는 모르는 것을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책임임을 알았다.

〔나〕 다시 길을 묻는 사람을 만나자, 나는 손가락을 들기 전에 휴대전화 지도를 열었다.

(E05의 경험을 이어 쓴 두 가지 표현입니다. E05의 3컷 참조.)

예시 뜯어보기

직접 진술과 간접적 제시 · 문장 내용 확인

기준	직접 진술(말하기)	간접적 제시(보여 주기)
글에 있는 것	글쓴이의 생각·깨달음을 밝힌 문장	행동·장면 등에서 뜻을 읽을 단서
단서	'~임을 알았다' '~라고 생각했다' 'A는 B(하는 일)이었다'처럼 대상의 뜻을 풀이한 문장	생각 자체를 밝히기보다 구체적 행동·장면을 제시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았는지 문장 내용 확인	앞뒤 경험을 이어 행동·장면의 뜻을 짐작
E09 예시	〔가〕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책임임을 알았다.	〔나〕 손가락을 들기 전에 휴대전화 지도를 열었다.

'나는'이 있다고 직접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쓴 문장에도 앞뒤와 연결해 읽을 뜻이 있습니다.

근거를 연결하면 〔가〕는 깨달음 자체를 써 두었고, 〔나〕는 앞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의 뜻을 독자가 잇게 합니다. '나는'이라는 말은 두 부분에 모두 있으므로 판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비유 말로 밝힘과 행동으로 보여 줌

비유
'나 화났어'라고 말하는 것과 문을 쾅 닫는 행동을 나란히 봅니다.

개념 대응
감정을 말로 밝힘 / 문맥 속 행동에서 감정을 짐작함의 차이에 비깁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문을 닫은 행동만으로 화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필의 간접적 제시는 감정뿐 아니라 깨달음·태도도 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문장에 '나는'이 있으면 생각을 직접 진술한 표현이다.

이렇게 고쳐요
'나'의 등장 여부가 아니라 생각을 분명히 말했는지, 행동 등에서 뜻을 짐작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E10 제목·반복·대비의 효과는 어떤 근거로 설명하나요?

짧은 답 제목·반복·대비가 어떤 생각이나 변화를 도드라지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표현의 이름만 찾지 말고 이 글의 구체적인 앞뒤 장면과 연결합니다.

한 줄 공식 **표현 장치(제목·반복·대비) + 이 글 속 변화 → 효과**

같은 말을 반복해도 앞뒤 태도가 달라지면 그 차이를 비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그 변화가 모인 대상이나 행동을 다시 살펴보게 합니다. 대비를 읽을 때는 어느 두 장면이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찾습니다. '생생하다'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드러내는지 씁니다.

창작 예시

제목: 「두 번째 인사」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하고 눈도 들지 않은 채 지나갔다. 저녁에는 아저씨가 하루 종일 고장 난 문을 살피고 계셨다는 말을 들었다. 다시 만났을 때 발을 멈추고 눈을 맞추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내가 늘 건네던 말에 이제야 그분을 보는 마음이 담긴 듯했다.

청록 테두리 제목·반복·대비 장치

예시 뜯어보기

제목·반복·대비 · 효과를 설명하는 틀

살필 것	제목	반복	대비
찾는 질문	제목의 말이 글 어디와 이어지나?	같은 말이 앞뒤에서 어떻게 쓰이나?	서로 다른 두 태도·장면은 무엇인가?
이 예시	「두 번째 인사」 / 두 번의 인사	두 번의 “안녕하세요”	눈도 들지 않음 / 멈추고 눈을 맞춤
드러내는 점	두 번째 인사의 달라진 마음	말은 같아도 달라진 태도	습관적 인사 / 상대를 보는 인사

효과 설명 문장 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떤 생각·변화)를 도드라지게 한다.

적용: 두 인사 장면을 대비하여, 습관적으로 지나치던 데서 상대를 바라보는 쪽으로 달라진 태도를 도드라지게 한다.

근거를 연결하면 같은 인사말이 되풀이되지만 눈을 들지 않은 장면과 눈을 맞춘 장면의 태도는 다릅니다. 제목의 ‘두 번째’는 횟수를 세는 데서 나아가 그 차이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안녕하세요’가 반복되므로 처음과 끝의 태도도 같다.

이렇게 고쳐요
반복된 말이 각 장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비교해 달라진 태도를 설명합니다.

E11 글에 쓰인 것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짧은 답 글에 분명히 쓰인 내용, 근거를 이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을 나눕니다. 한 번의 일을 '모두·언제나'로 넓혀 말하는 일반화도 경계합니다.

한 줄 공식 **글에 있음 / 근거로 짐작함 / 알 수 없음**

글에 적힌 행동에서 태도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장면을 넘어 평생의 성격이나 모든 사람의 반응까지 말하려면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근거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창작 예시

나는 줄곧 닫아 두던 반려 새의 새장 덮개를 오늘은 걷었다. 새가 햇볕 드는 쪽으로 몸을 옮기자, 새장을 창가 가까이 조금 옮겼다.

예시 뜯어보기

근거의 범위 · 세 구역 신호등

한 예시 문단
새장 덮개를 걷었다. 새가 햇볕 쪽으로 움직이자 새장을 창가 가까이 조금 옮겼다.

초록 · 글에 쓰여 있음
오늘 새장 덮개를 걷고 새장을 옮겼다.

노랑 · 근거로 짐작할 수 있음
오늘은 새의 반응을 살피며 행동한다.

빨강 · 알 수 없음·지나친 일반화
앞으로도 매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근거를 연결하면 덮개를 걷고 새장을 옮긴 행동을 이어 보면 오늘은 새의 반응을 살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만으로 앞으로 매일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유 발자국에서 알 수 있는 범위

비유

발자국이 있다는 사실로 누군가 지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과 평생의 성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개념 대응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을 나눕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문학의 의미는 물리적 흔적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문장·상황·표현을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오늘의 행동을 읽고 앞으로도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한다고 단정한다.

이렇게 고쳐요

지금 드러난 태도와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를 구별합니다.

확인 문제 3장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과 근거

연결 개념 **E09~E11** (22~27쪽)

Q17 다음 중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직접 진술한 문장은?

① 친구 책상에는 내가 건넨 사과 쪽지가 펼쳐져 있었다.
② 나는 변명을 적었던 종이를 접고 친구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③ 사과는 내 잘못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살피는 일이었다.
④ 대답을 기다리던 친구 앞에서 내 입술이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Q18 다음 끝부분의 표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나는 분리배출을 남이 하는 일로 여기며 지나쳤다. 끝부분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버리려던 요구르트 병을 다시 들었다. 남은 것을 헹군 뒤 라벨을 떼고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① 생각을 밝힌 문장이 없으므로 앞뒤 태도의 차이를 읽을 수 없다.
② '나는'이 있으므로 분리배출의 의미를 직접 진술한다.
③ 병을 헹구었으므로 앞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쓰레기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④ 달라진 행동으로 자신도 분리배출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Q19 두 부분에서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가〕 칭찬은 잘된 결과를 고르는 일만이 아니라 그 뒤에 든 수고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나〕 동생이 구운 빵은 한쪽이 조금 탔다. 나는 접시를 당기고, 동생이 새벽부터 반죽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① 〔나〕에는 '나는'이 있으므로 생각을 직접 진술한다.
② 〔가〕는 대화문이 아니므로 생각을 직접 밝힌 표현일 수 없다.
③ 〔나〕는 행동만 썼으므로 〔가〕의 생각과 연결할 수 없다.
④ 〔가〕는 생각을 직접 진술하고, 〔나〕는 행동으로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Q20 **제목 「돌아오는 공」을 작품과 연결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은 「돌아오는 공」이다. 나는 공을 잡으면 혼자 골대까지 몰고 갔다. 어느 날 패스를 건네자 친구가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공을 보내 주었다. 이후 나는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 움켜쥐기보다 함께 주고받는 길을 보게 되었다.

① 제목의 뜻은 공이 이동한 사실에만 있고 함께한다는 생각과는 관계없다.
② 혼자 지키려던 공을 주고받게 된 변화를 통해 제목의 뜻을 읽는다.
③ 공은 언제나 경쟁의 상징이므로 제목은 끝까지 혼자 이기려는 마음을 뜻한다.
④ 같은 공이 돌아왔으므로 처음과 끝의 태도도 그대로라고 본다.

Q21 **밑줄 친 표현이 반복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더 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실험 기록지를 덮었다. 온도계가 물에 충분히 잠기지 않았음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더 재어 보자. 이번에는 눈금을 제대로 읽고 싶어."

① 같은 말이므로 두 장면 모두 실험을 그만두려는 뜻을 강조한다.
② 표현이 반복되므로 두 측정의 결과 수치도 똑같았음을 알린다.
③ 같은 말을 앞뒤에 놓아 측정을 되풀이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게 한다.
④ 같은 말을 되풀이해 정확한 측정보다 실험을 끝내려는 조급함이 커졌음을 강조한다.

Q22 **두 행동의 대비를 이 글에 맞게 설명한 것은?**

자전거 경주에서 나는 다른 아이의 앞바퀴만 보며 추월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넘어진 아이가 길가에서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를 세워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① 멈추는 행동을 써 두었으므로 '순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직접 진술한 것이다.
② 추월하려던 행동과 멈추어 다가간 행동을 대비해 순위만 보던 데서 다친 사람을 살피는 쪽으로 달라진 태도를 드러낸다.
③ 자전거가 멈추었으므로 글쓴이의 모든 경쟁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드러낸다.
④ 앞뒤 모두 다른 아이를 보았으므로 순위를 앞세운 태도가 그대로임을 드러낸다.

Q23 **이 대목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쁜 아침이면 나는 화분 옆을 그냥 지나쳤다. 새잎을 발견한 날, 출발하려던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잎을 바라보았다.

① 가방을 내려놓았으므로 모든 약속보다 화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② 글쓴이는 앞으로 어떤 바쁜 아침에도 화분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③ 이 순간에는 그냥 지나치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이 나타난다.
④ 새잎이 났으므로 글쓴이가 화분을 보는 생각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다.

Q24 **수필의 경험과 문학적 표현을 함께 고려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글쓴이는 '시곗바늘이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듯했다'고 썼다.

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낀다는 뜻이다.
② 기다림이 길게 느껴진 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읽되, 시계의 실제 고장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③ 비유가 있으므로 글쓴이의 경험에 바탕을 둔 수필로 읽을 수 없다.
④ 수필은 실제 경험을 쓰므로 이 문장만으로 시계가 고장 났다고 단정한다.

Q25 **다음 글을 근거의 범위에 맞게 이해한 것은?**

밤늦게 음악을 틀었다가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나는 밤에는 먼저 이어폰을 찾게 되었다. 여전히 음악은 좋아하지만, 내가 즐기는 소리가 남에게는 잠을 깨우는 소리일 수 있음을 생각한다.

① 이 일을 겪은 뒤 음악을 좋아하던 마음까지 완전히 사라졌다.
② 밤에 듣는 방법을 바꾸었으므로 어느 시간에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
③ 이 경험 뒤 밤에 음악을 듣는 방법과 소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④ 소리 문제를 겪은 사람은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Q26 다음 글을 읽은 판단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처음 만든 달걀말이는 바닥이 탔다. 나는 까만 부분만 보며 실패라고 말했다. 동생이 안쪽을 맛있게 먹자 다음에는 불을 조금 줄여 보겠다고 적었다.

① 끝에서는 요리를 그만두는 대신 방법을 바꾸어 다시 해 보려 한다.
② 동생이 먹었으므로 글쓴이는 앞으로 어떤 요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③ 동생의 반응이 다음 시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처음에 탄 부분에만 주목해 실패라고 보았다.

Q27 표현의 효과를 이 장면에 맞게 설명한 것은?

축제 준비 때 나는 조명 담당이 무대에 서지 않아 편하겠다고 생각했다. 공연이 끝난 뒤 조명실에서 지워지지 않는 연필 표시와 여러 번 고친 조작표를 보았다. 나는 박수가 들리는 쪽 대신 조명실 문을 두드렸다.

① 행동만 있으므로 조명 담당을 보는 생각은 전혀 읽을 수 없다.
② 조명실을 찾았으므로 무대에 서는 사람의 수고는 모두 가치 없다는 뜻이다.
③ 조명실에 갔으므로 처음부터 조명 담당의 수고를 모두 이해했음을 드러낸다.
④ 관심을 두는 방향이 무대에서 조명실로 달라진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던 수고를 알아보는 태도를 드러낸다.

Q28 〔가〕·〔나〕 의 표현 방식을 각각 쓰고, 처음과 마지막 행동의 대비가 드러내는 태도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처음 나는 동생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가 정한 자세만 시켰다.
〔가〕 사진에 담기는 사람의 뜻도 사진을 찍는 내 생각만큼 소중했다.
〔나〕 다음에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동생에게 원하는 자세를 물었다.

〔가〕 방식	
〔나〕 방식	
대비의 효과	

종합 A Q29~Q34

창작 수필 「풀어 둔 매듭」

〔가〕 아버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친척이 보내 준 상자에는 종이와 함께 가는 면 끈이 둘러져 있었다. 나는 서랍 쪽을 가리키며 가위로 자르면 금방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듭을 내려다보며 손끝을 조금씩 움직였다. 내 눈에는 상자를 여는 일보다 매듭을 푸는 일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 "끊으면 빠르지. 그런데 다음 상자를 묶을 때는 이만한 끈이 또 필요하잖아." 아버지는 한 고리를 느슨하게 만든 뒤 다른 고리를 잡았다. 곧 상자에서 풀려난 끈이 길게 놓였다. 나는 방금까지 열리지 않는 매듭만 보았는데, 아버지는 아직 오지 않은 상자까지 보고 있었던 셈이다.

〔다〕 길게 놓인 끈을 보니 어제 내가 받은 상자가 떠올랐다. 나는 테이프와 끈을 한꺼번에 자른 뒤 짧아진 끈을 버렸다. 쓸모가 없는 물건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끈의 쓰임이 사라진 것은 내가 자르고 난 뒤였다. 나는 어제의 선택을 처음부터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한 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라〕 며칠 뒤 내 앞에 또 상자가 왔다. 서랍에는 가위가 있었지만 나는 먼저 손끝으로 매듭의 틈을 찾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고 손을 거두지는 않았다. 풀린 끈을 상자 옆에 내려놓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의 느린 손이 무엇을 남기고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상자에 묶인 면 끈을 아버지가 손끝으로 푸는 장면입니다.

Q29 **A의 전체 흐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아버지와 자신이 겪은 일만 나열하며 그 경험에 붙인 생각은 드러내지 않는다.
② 매듭을 푸는 속도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해, 끈의 다음 쓰임을 고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③ 어제 일을 떠올리는 회상이 있으므로 매듭을 보는 생각은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다.
④ 처음부터 끈을 다시 쓸 생각이었으며 마지막 행동은 처음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다.

Q30 **A의 〔나〕에 제시된 아버지의 말이 하는 역할은?**

① 속도에만 주목하던 '나'에게 끈의 다음 쓰임이라는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② 끈을 풀어야 더 빨리 상자를 열 수 있다는 이유로 '나'의 속도 기준을 강화한다.
③ 아버지가 자기 생각을 말했으므로 곧바로 글쓴이 자신의 직접 진술에 해당한다.
④ 아버지가 답을 말해 주었으므로 '나'가 자기 판단을 돌아볼 과정은 생략된다.

Q31 **A의 〔다〕에서 어제 일을 떠올린 부분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버릴 때부터 다음 쓰임을 중시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판단은 같다.
② 과거를 떠올린 것만으로 생각의 변화가 증명되므로 '그러나' 뒤의 판단은 볼 필요가 없다.
③ 어제 일을 떠올렸으므로 현재의 끈과는 내용상 연결되지 않는다.
④ 현재의 끈을 보다가 자신의 지난 행동을 떠올리고 그때의 판단을 돌아본다.

Q32 **A의 마지막 행동을 근거에 맞게 해석한 것은?**

① 가위로 끊는 대신 틈을 찾아 풀면서, 다음에 쓸 가능성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② 손끝을 썼으므로 처음에 중시했던 속도만을 더 효율적으로 높이는 태도이다.
③ 행동을 쓴 문장이므로 생각을 읽을 단서는 없고 기술만 설명한다.
④ 끈을 풀었으므로 앞으로 모든 포장재를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Q33 **A의 제목 '풀어 둔 매듭'을 작품과 연결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듭이 풀렸으므로 글쓴이가 앞으로 모든 일을 망설임 없이 해결한다는 뜻이다.
② '매듭'은 어느 글에서나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므로 끝에서도 처음의 답답함만 남긴다.
③ 제목은 끈을 빨리 끊는 방법을 강조하여 처음의 속도 기준을 확인하게 한다.
④ 끈을 끊지 않고 풀어 다음 쓰임을 남긴 행동과, 판단이 달라진 경험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Q34 **A의 중심 의미를 유지하며 마지막 장면을 바꾼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다음 쓰임을 생각했지만 시간이 아까워 이번만 가위로 잘랐다.
② 나는 끈을 풀며 역시 빨리 끝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③ 나는 시간이 아까워 끈을 여러 토막으로 자른 뒤 모두 버렸다.
④ 나는 푼 끈을 작게 말아 다음 상자 옆에 놓고, 끊어진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폈다.

종합 B Q35~Q40

창작 수필 **「빈 칸」**

〔가〕 나는 일요일 저녁마다 다음 주 일정표를 펼쳤다. 비어 있는 칸이 보이면 하루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일들을 적어 넣고 나서야 안심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그래도 칸이 채워지면 적어도 뒤처져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 지난 일요일에는 오후의 한 일이 취소되었다. 나는 남은 일을 그 칸으로 옮겼다가 지웠고, 다른 할 일을 찾아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 쉬어도 되는 시간이 생겼는데 쉬는 방법부터 생각하지 못했다. 한 칸을 메우려고 고르는 동안 정작 하던 일에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다〕 결국 나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고 한동안 밖을 보았다. 늘 같은 나무라고 생각한 가지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쪽으로 흔들렸다. 조금 전까지 창밖이 어땠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내 눈은 종이의 빈 곳에만 붙들려 있었던 것이다.

〔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내 하루의 일부였다. 그 한동안은 무언가를 끝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했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지우고 싶어진 것은 아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칸을 가득 채운 모습만으로 하루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마〕 오늘 나는 다음 주에 필요한 일을 적었다. 그러고는 남은 칸 하나를 비워 두었다. 그 칸에는 늦게라도 새 일을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쉬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빈 곳을 지우지 않고 일정표를 덮었다.



일정표 곁에 펜을 내려놓고 열린 창문 밖을 보는 장면입니다.

Q35 **B에서 처음의 ‘나’가 빈 칸을 대하는 태도는?**

① 계획이 없는 시간을 뒤처짐처럼 여겨 칸을 채우려 한다.

② 빈 칸은 누구에게나 뒤처짐을 뜻한다고 글쓴이가 증명한다.

③ 해야 할 일만 골라 적었으므로 칸이 남아도 불편하지 않다.

④ 처음부터 쉴 여지를 남기려 칸을 채우지 않는다.

Q36 **B의 〔다〕가 앞뒤 내용 사이에서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만 달라졌고 글쓴이가 빈 시간을 보는 생각은 그대로이다.

②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 주변을 바라본 경험이, 빈 시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③ 바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주변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④ 주변을 본 경험은 일정과 관계없는 삽입이므로 뒤의 생각과 이어지지 않는다.

Q37 **B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내 하루의 일부였다’의 표현 방식은?**

① 앞의 풍경을 회상했으므로 이 문장은 기억의 연결만 나타내고 깨달음은 없다.

② 몸짓만 보여 주고 생각은 독자가 짐작하게 하는 간접적 제시이다.

③ 빈 시간에 대해 새로 깨달은 생각을 직접 진술한다.

④ ‘나’에 관한 말이므로 시간에 대한 판단 없이 경험만 기록한다.

Q38 **B의 마지막에 빈 칸 하나를 남긴 행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획을 세우면서도 쉬어 갈 여지를 남기겠다는 달라진 태도를 드러낸다.

② 행동만 제시되므로 빈 시간에 대한 앞의 깨달음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③ 처음처럼 채운 모습만으로 하루의 가치를 정하겠다는 결심이다.

④ 앞으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Q39 **B를 읽고 내린 판단 중 근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① 창밖을 바라본 경험이 생각의 변화에 연결된다고 읽는다.

② 처음에는 빈 일정 칸을 불편하게 여겼다고 읽는다.

③ 글쓴이는 앞으로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④ 끝에서 필요한 일과 쉬는 여지를 함께 남기려 한다고 읽는다.

Q40 **B의 제목 '빈 칸'이 처음과 끝에서 각각 어떤 의미인지 쓰고, 그 변화를 보여 주는 행동의 대비와 효과를 설명하세요.**

처음의 의미	
끝의 의미	
행동의 대비·효과	

정답·해설 문학 적용 12

빠른 정답표

Q01	③	Q02	①	Q03	②	Q04	③	Q05	①
Q06	②	Q07	④	Q08	**서술형**	Q09	④	Q10	①
Q11	①	Q12	④	Q13	②	Q14	①	Q15	③
Q16	**서술형**	Q17	③	Q18	④	Q19	④	Q20	②
Q21	③	Q22	②	Q23	③	Q24	②	Q25	③
Q26	②	Q27	④	Q28	**서술형**	Q29	②	Q30	①
Q31	④	Q32	①	Q33	④	Q34	④	Q35	①
Q36	②	Q37	③	Q38	①	Q39	③	Q40	**서술형**

Q01 해설

정답 ③

①	✗ 경험·생각 분리 — 관찰에 붙인 생각도 수필의 중요한 내용이다.
②	✗ 비유·사실 혼동 — 느낌을 담은 비유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나누어 읽는다.
③	✓ E01 개념 근거: 「수필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관찰에 생각을 담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산문입니다.」 경험뿐 아니라 글쓴이가 붙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④	✗ 경험 기반·완전한 기록 혼동 — 경험을 고르고 다듬을 수 있으며 제시 순서도 자유롭다.

연결 개념 **E01** (3~4쪽)

Q02 해설

정답 ①

①	✗ 적절하지 않음 — E02 개념 근거: 「순서를 바꾸어도 앞의 관찰이 뒤의 기억이나 생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바꾼 것과 내용의 연결이 없는 것을 혼동한 설명이다. ← 정답
②	○ 적절함 — 제시 순서 판별 — 과거를 중간에 넣는 역순행적 구성도 가능하다.
③	○ 적절함 — 고정 틀 여부 판별 — 경험부터 시작해야 하는 규칙은 없다.
④	○ 적절함 — 자유·짜임 판별 — 자유로운 형식과 짜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연결 개념 **E02** (4~5쪽)

Q03 해설

정답 ②

①	✗ 관찰·의미 혼동 — 사물의 상태뿐 아니라 각 글쓴이가 붙인 생각을 보아야 한다.
②	✓ 「A는 낡은 의자에 남은 흠집을 보며 가족이 함께 앉았던 시간을 떠올린다.」 같은 소재에서도 주목한 특징과 연결한 생각이 다른지 비교해야 한다.
③	✗ 소재·주제 혼동 — A는 기억에, B는 쓰임을 되찾는 데 주목한다.
④	✗ 고정 상징 대입 — 이 글은 흠집을 함께 앉았던 시간과 연결한다.

연결 개념 **E03** (6쪽)

Q04 해설

정답 ③

①	✗ 겉·속 동일시 —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던 다른 마음을 털어놓았다.
②	✗ 고백·개성 혼동 — 솔직히 마음을 밝힘과 남과 다른 주제를 가짐은 같은 기준이 아니다.
③	✓ 「내 이름도 한 번쯤 불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겉으로 축하한 뒤 감추기 쉬운 자기 바람을 스스로 밝힌다.
④	✗ 대명사·고백 혼동 — 자기 행동의 서술만으로 고백적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 개념 **E04** (7~8쪽)

Q05 해설

정답 ①

①	✓ E01 개념 근거: 「수필 속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읽되 글 밖의 이력은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②	✗ 수필·소설의 나 혼동 — 수필의 기본 설명과 소설의 서술자 설명을 뒤바꾸었다.
③	✗ 경험 기반·근거 범위 혼동 — 경험을 썼다는 사실이 쓰이지 않은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④	✗ 대명사·생각 혼동 — '나'가 없어도 판단이나 느낌을 밝힐 수 있다.

연결 개념 **E01** (3~4쪽) · **E04** (7~8쪽)

Q06 해설

정답 ②

①	✗ 인물의 시선 혼동 — 동생의 반응과 글쓴이가 주목한 대상은 다르다.
②	✓ 「작은 손자국을 보며, 동생이 발끝을 세워 닦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렸다.」 남은 흔적에서 동생의 애쓴 모습을 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③	✗ 개인적 시선의 일반화 — 글쓴이의 특정 기억을 모든 사람의 반응으로 넓힐 수 없다.
④	✗ 고정 상징 대입 — 이 글은 손자국을 동생의 애쓴 모습과 연결한다.

연결 개념 **E03** (6쪽) · **E04** (7~8쪽)

Q07 해설

정답 ④

①	✗ 자유로운 형식·짜임 혼동 — 관찰이 기억을 부르고 그 기억이 지금 생각과 이어진다.
②	✗ 시간 순서·제시 순서 혼동 — 현재 관찰이 먼저 제시되며 과거는 중간에 나온다.
③	✗ 처음·끝 제시 순서 혼동 — 첫 단계는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이다.
④	✓ 「오늘 버스 창가의 물방울을 본다 → 처음 혼자 버스를 타던 날을 떠올린다 → 그때 나를 기다린 사람을 이제는 내가 기다려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 생각으로 돌아오는 제시 순서이다.

연결 개념 **E02** (4~5쪽)

Q08 해설

예시 답안

요소	답
고백적 성격이 드러난 마음	선물이 기뻤는데도 무심한 척 말한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마음이 생긴 경험	친구가 준 책갈피를 발견해 귀퉁이를 펴서 따로 보관하면서, 받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다.

✅ **근거와 연결** 「선물이 기쁘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감추었던 기쁨과 자신의 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밝힌 부분이 고백의 근거이다.

채점 요소

요소	인정 범위·배점
속마음	기쁨을 감추려 무심한 척한 말과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연결 1점
경험 근거	책갈피의 발견·보관과 받을 때의 말을 연결 1점

같은 뜻을 지문 근거에 맞게 쓴 답도 인정합니다. 요구한 경험·생각·효과를 빠뜨리거나 글에 없는 사건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개념 **E04** (7~8쪽) · **E06** (13~15쪽)

Q09 해설

✅ **정답 ④**

①	❌ 경험·성찰 혼동 — 먹이를 준 사건 자체이며 자기 태도에 대한 판단은 없다.
②	❌ 관찰·성찰 혼동 — 남은 먹이의 상태를 관찰한 문장이다.
③	❌ 연상·성찰 혼동 — 대상에서 과거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 문장만으로 자기 태도를 돌아보지는 않는다.
④	✅ 「좋아할 거라며 많이 주기만 한 내 방식부터 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자기 방식을 돌아본다.

연결 개념 **E05** (12~13쪽) · **E06** (13~15쪽) · **E08** (16~18쪽)

Q10 해설

정답 ①

①	✅ 「내가 먹을 양을 아는 것도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음식이 남지 않은 사건과 그 사건에 붙인 의미를 나눈다.
②	❌ 경험·생각 뒤바꿈 — ㉡은 배려라는 의미를 붙인 판단이다.
③	❌ 행동 언급·생각 기능 혼동 — ㉡은 먹는 행동의 의미를 해석한다.
④	❌ 자기 서술·고백 혼동 — 자기 경험을 쓴다고 모두 숨겨 둔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아니다.

연결 개념 **E06** (13~15쪽)

Q11 해설

정답 ①

①	✅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내 손에 장갑을 쥐여 주었다.」 장갑을 찾아 건넨 구체적인 행동이 마지막 생각을 뒷받침한다.
②	❌ 행동·직접 진술 혼동 — 친구의 목적을 말한 문장은 없다.
③	❌ 한 일화의 일반화 — 도움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며 감사 인사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④	❌ 말·행동 동일시 — 말보다 먼저 나타난 도움의 행동을 놓쳤다.

연결 개념 **E07** (15~16쪽)

Q12 해설

정답 ④

①	⭕ 적절함 — 규모·기능 판별 — 일화의 기능은 사건의 크기로만 정하지 않는다.
②	⭕ 적절함 — 사건·생각 연결 판별 — 일화가 어떤 생각을 받치는지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 적절함 — 재미·의미 양립 판별 —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보여 주는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E07 개념 근거: 「일화 하나가 뒷받침하는 생각은 읽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나 평생 행동까지 딱 잘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사건이 뒷받침하는 범위를 인물의 평생으로 넓힌 설명이다. ← 정답

연결 개념 **E07** (15~16쪽) · **E11** (26~27쪽)

Q13 해설

정답 ②

①	✗ 연상·인식의 변화 혼동 — 숙제에 대한 처음과 나중의 좋아함·싫어함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새 연필을 깎는 냄새가 나자, 예전 도서관 책상에서 숙제를 하던 저녁이 떠올랐다.」 현재 맡은 냄새가 지난 저녁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③	✗ 회상·인식의 변화 혼동 — 기억의 연결은 있지만 연필에 대한 달라진 판단은 없다.
④	✗ 연상의 출발·도착 뒤바꿈 — 현재의 냄새에서 과거 기억이 떠오른 순서이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Q14 해설

정답 ①

①	✓ 「이제 그 종이를 보면 글씨의 모양보다 나를 챙긴 마음이 먼저 보인다.」 같은 메모에 주목하는 기준이 글씨 모양에서 마음으로 달라진다.
②	✗ 대상 변화·생각 변화 혼동 — 메모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같은 메모를 보는 생각이 달라졌다.
③	✗ 처음·나중 판단 혼동 — 처음에는 읽기 어렵다고만 생각했다.
④	✗ 인식의 변화·회상 혼동 — 과거 사건 회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메모를 보는 판단을 밝힌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Q15 해설

정답 ③

①	✗ 회상·인식의 변화 혼동 — 〔가〕에는 달라진 처음·나중 판단의 근거가 없다.
②	✗ 회상·연상 관계 혼동 — 현재의 보리차 냄새가 과거 기억의 출발점이다.
③	✓ 「이제는 삐뚤어진 자리가 그때의 첫 시도를 남긴 흔적으로 보인다.」 두 글 모두 대상에서 옛일을 떠올리지만 〔나〕는 받침을 보는 처음·나중 생각도 다르다.
④	✗ 연상·변화의 양립 부정 — 나무 받침에서 첫 톱질을 떠올리는 회상이 함께 나타난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Q16 해설

예시 답안

요소	답
처음 판단	낡은 공책과 틀린 흔적을 버리거나 지워야 할 것으로 보았다.
나중 판단	틀린 흔적도 함께 막힌 곳을 확인하고 답을 찾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변화의 계기	동생도 같은 문제에서 막혔음을 알고 공책의 흔적을 바탕으로 함께 답을 찾았다.

✅ **근거와 연결** 「나는 틀린 흔적을 지워야 할 얼룩만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동생과 함께 답을 찾은 경험이 틀린 흔적을 보는 생각을 바꾸었다.

채점 요소

요소	인정 범위·배점
처음 판단	버리거나 지울 대상으로 본 판단 1점
나중 판단	흔적의 새로운 쓰임을 문맥에 맞게 제시 1점
변화의 계기	동생의 반응과 함께 답을 찾은 경험을 연결 1점

같은 뜻을 지문 근거에 맞게 쓴 답도 인정합니다. 요구한 경험·생각·효과를 빠뜨리거나 글에 없는 사건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개념 **E05** (12~13쪽) · **E06** (13~15쪽) · **E08** (16~18쪽)

Q17 해설

✅ **정답 ③**

①	❌ 소품·생각 진술 혼동 — 쪽지가 놓인 장면만 있고 그 안의 생각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나·직접 진술 혼동 — ‘나는’이 있지만 생각의 의미는 행동에서 읽어야 한다.
③	✅ 정답 선택지의 문장: 「사과는 내 잘못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살피는 일이었다.」 사과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밝힌다.
④	❌ 행동·생각 진술 혼동 —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장면이며 생각 자체를 밝힌 문장은 아니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Q18 해설

정답 ④

①	✗ 간접적 제시의 의미 부정 — 행동의 차이가 태도를 읽는 근거이다.
②	✗ 대명사·직접 진술 혼동 — 행동의 주체만 밝혔으며 의미를 설명한 문장은 없다.
③	✗ 한 장면의 일반화 — 이 장면의 참여 태도를 평생 모든 행동으로 넓힐 수 없다.
④	✓ 「남은 것을 헹군 뒤 라벨을 떼고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앞의 지나침과 달라진 행동을 연결해 태도의 뜻을 짐작하게 한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 **E11** (26~27쪽)

Q19 해설

정답 ④

①	✗ 대명사·표현 방식 혼동 — 대명사가 아니라 생각을 밝힌 문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 대화문·직접 진술 혼동 — 글쓴이의 서술로도 자기 생각을 직접 밝힐 수 있다.
③	✗ 행동·의미 단절 —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을 주는 행동이 앞의 생각과 연결된다.
④	✓ 「칭찬은 잘된 결과를 고르는 일만이 아니라 그 뒤에 든 수고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가〕는 생각 자체를, 〔나〕는 수고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쓴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Q20 해설

정답 ②

①	✗ 사건·의미 분리 — 공이 돌아온 경험에 글쓴이의 새 생각이 이어진다.
②	✓ 「함께 주고받는 길을 보게 되었다.」 되돌아온 공의 경험이 혼자 소유하던 태도와 달라진 생각을 모은다.
③	✗ 고정 상징 대입 — 이 글은 공을 함께 주고받는 변화와 연결한다.
④	✗ 대상 동일·판단 동일 혼동 — 같은 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연결 개념 **E10** (24~25쪽)

Q21 해설

정답 ③

①	✗ 반복·동일 의미 혼동 — 뒤에서는 스스로 다시 재자고 한다.
②	✗ 표현 반복·사실 동일 혼동 — 같은 말이 반복된 것이며 결과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 「한 번 더 재어 보자. 이번에는 눈금을 제대로 읽고 싶어.」 반복을 귀찮아하던 말이 정확히 알아보려는 말로 달라졌다.
④	✗ 태도 변화의 방향 혼동 — 뒤에서는 실험을 끝내려 하기보다 정확히 재어 보려 한다.

연결 개념 **E10** (24~25쪽)

Q22 해설

정답 ②

①	✗ 행동·직접 진술 혼동 — 그 생각 자체를 쓴 문장 없이 행동으로 짐작하게 한다.
②	✓ 「나는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를 세워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처음 바라본 대상과 마지막 선택이 달라진 점을 연결했다.
③	✗ 한 장면의 일반화 — 이 순간의 선택을 모든 경쟁심의 소멸로 넓힐 수 없다.
④	✗ 행동의 표면·태도 혼동 — 처음은 추월을, 끝은 넘어진 아이를 살피는 행동을 선택한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 **E10** (24~25쪽)

Q23 해설

정답 ③

①	✗ 부분 행동·전체 가치 혼동 — 잠시 주의를 기울인 일을 모든 약속의 우선순위로 넓혔다.
②	✗ 현재·미래 일반화 — 앞으로 매번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③	✓ 「출발하려던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잎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까지 읽는 것이 근거에 맞다.
④	✗ 대상 변화·태도 변화 혼동 — 앞의 그냥 지나침과 뒤의 바라봄은 다르다.

연결 개념 **E11** (26~27쪽) · **E06** (13~15쪽)

Q24 해설

정답 ②

①	✗ 개인 반응의 일반화 — 이 글쓴이의 반응을 모든 사람의 느낌으로 넓힐 수 없다.
②	✓ 「시곗바늘이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듯했다」 실제 시간의 정지보다 글쓴이에게 시간이 더디게 느껴진 반응을 표현한다.
③	✗ 경험 기반·문학적 표현 혼동 — 수필도 느낌을 비유로 표현할 수 있다.
④	✗ 비유·사실 혼동 — '멈춘 듯했다'는 느낌의 표현이다.

연결 개념 **E01** (3~4쪽) · **E09** (22~23쪽) · **E11** (26~27쪽)

Q25 해설

정답 ③

①	✗ 방법 변화·취향 변화 혼동 — 음악은 여전히 좋아한다고 했다.
②	✗ 상황·정도 확대 — 밤에 이어폰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모든 소리를 단정할 수 없다.
③	✓ 「그 뒤 나는 밤에는 먼저 이어폰을 찾게 되었다.」 변화가 드러난 시간·상황과 정도를 지문에 맞게 한정했다.
④	✗ 개인 경험의 일반화 — 이 글은 글쓴이가 선택한 방법만 보여 준다.

연결 개념 **E11** (26~27쪽) · **E05** (12~13쪽)

Q26 해설

정답 ②

①	○ 적절함 — 행동에서 태도 판별 — 다음에는 불을 줄이겠다는 선택이 근거이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다음에는 불을 조금 줄여 보겠다고 적었다.」 다음 시도를 생각했다는 근거로 앞으로 모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 정답
③	○ 적절함 — 계기·생각 연결 판별 — 동생의 반응 뒤에 다음 방법을 적는다.
④	○ 적절함 — 처음 판단 판별 — 처음의 말과 주목한 대상을 그대로 연결했다.

연결 개념 **E11** (26~27쪽)

Q27 해설

정답 ④

①	✗ 간접적 제시의 의미 부정 — 앞뒤 생각과 행동을 이어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 한 대상 주목의 일반화 — 보이지 않던 수고를 알아봄이 다른 수고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③	✗ 처음·나중 판단 뒤바꿈 — 처음에는 편하겠다고 생각했다.
④	✓ 「나는 박수가 들리는 쪽 대신 조명실 문을 두드렸다.」 처음의 짐작과 달리 준비 흔적을 본 뒤 선택한 행동을 연결한 설명이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 **E10** (24~25쪽)

Q28 해설

예시 답안

요소	답
〔가〕 방식	생각을 문장으로 직접 진술한다.
〔나〕 방식	묻는 행동으로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대비의 효과	내가 정한 자세만 시킨 행동과 동생에게 원하는 자세를 물은 행동을 대비하여, 찍히는 사람의 뜻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도드라지게 한다.

근거와 연결 「다음에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동생에게 원하는 자세를 물었다.」 처음의 지시와 마지막의 물음을 대비해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읽는다.

채점 요소

요소	인정 범위·배점
두 방식	직접 진술·간접적 제시를 각 부분에 맞게 연결, 각 1점
효과·근거	처음의 일방적인 지시와 마지막의 물음을 모두 근거로, 동생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연결 1점. 장치 이름만 쓰면 인정하지 않음

같은 뜻을 지문 근거에 맞게 쓴 답도 인정합니다. 요구한 경험·생각·효과를 빠뜨리거나 글에 없는 사건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 **E10** (24~25쪽)

종합 A 지문 구조 한눈에

문단	겪은 일	생각·판단	달라진 점
(가)	아버지가 끈을 풀고 나는 가위를 권함	푸는 일이 오래 걸려 답답함	처음 판단: 빠른 방법을 앞세움
(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길게 풀린 끈을 봄	아버지는 다음 쓰임까지 보고 있었음을 생각함	속도 밖의 기준을 접함
(다)	현재 길게 놓인 끈을 봄	어제 자르고 버린 일을 떠올리고, 자른 뒤 쓰임이 사라졌음을 돌아봄	예전의 '쓸모없음' 판단을 다시 봄
(라)	며칠 뒤 가위 대신 손끝으로 매듭을 풂	느린 손이 남기는 것을 조금 알게 됨	끈의 다음 쓰임을 남기는 선택

Q29 해설

✅ **정답 ②**

①	❌ 경험·생각 기능 혼동 — 다음 쓰임과 어제 판단을 돌아보는 생각이 제시된다.
②	✅ 근거 1 「나는 서랍 쪽을 가리키며 가위로 자르면 금방이라고 말했다.」 근거 2 「서랍에는 가위가 있었지만 나는 먼저 손끝으로 매듭의 틈을 찾았다.」 빠르게 끊자던 처음에서, 끈의 다음 쓰임을 남기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③	❌ 회상·인식의 변화 혼동 — 회상과 함께 이전 판단을 돌아보고 마지막 선택도 달라진다.
④	❌ 처음·나중 판단 혼동 — 처음에는 가위로 빨리 끊자고 했다.

연결 개념 **E02** (4~5쪽) · **E08** (16~18쪽)

Q30 해설

✅ **정답 ①**

①	✅ 「다음 상자를 묶을 때는 이만한 끈이 또 필요하잖아.」 '다음 상자를 묶을 때'라는 말이 재사용의 관점으로 생각을 넓힌다.
②	❌ 속도·쓰임 기준 혼동 — 빨리 끊는 것보다 다음 쓰임을 남기는 관점을 말한다.
③	❌ 다른 사람의 말·글쓴이 진술 혼동 — 아버지의 관점을 옮긴 대화와 글쓴이 자신의 깨달음을 구별한다.
④	❌ 외부 말·성찰 과정 혼동 — 이어지는 회상과 마지막 선택이 자기 성찰 과정을 보여 준다.

연결 개념 **E06** (13~15쪽) · **E08** (16~18쪽)

Q31 해설

정답 ④

①	✗ 과거·현재 판단 혼동 — 당시에는 쓸모없는 물건을 버렸다고 여겼다.
②	✗ 회상·인식의 변화 혼동 — 기억의 연결뿐 아니라 예전 판단을 어떻게 돌아보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 시간 차이·내용 단절 혼동 — 현재의 긴 끈이 과거에 잘라 버린 끈의 기억을 부른다.
④	✓ 「그러나 끈의 쓰임이 사라진 것은 내가 자르고 난 뒤였다.」 대상에서 과거 기억이 이어지고, 자른 끈을 쓸모없다고 여긴 판단을 재검토한다.

연결 개념 **E05** (12~13쪽) · **E07** (15~16쪽) · **E08** (16~18쪽)

Q32 해설

정답 ①

①	✓ 근거 1 「서랍에는 가위가 있었지만 나는 먼저 손끝으로 매듭의 틈을 찾았다.」 근거 2 「풀린 끈을 상자 옆에 내려놓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의 느린 손이 무엇을 남기고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가위 대신 푸는 구체적인 선택이 앞의 다음 쓰임에 대한 생각을 이어 받는다.
②	✗ 행동 변화·기준 유지 혼동 — 시간이 걸려도 다음 쓰임을 남기는 선택이다.
③	✗ 행동·의미 단절 — 앞의 말과 성찰이 마지막 선택의 뜻을 뒷받침한다.
④	✗ 한 선택의 일반화 — 이 장면의 쓰임을 남기는 태도까지 읽을 수 있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 **E09** (22~23쪽) · **E10** (24~25쪽)

Q33 해설

정답 ④

①	✗ 한 사건의 일반화 — 매듭을 푼 일로 모든 미래 행동을 단정할 수 없다.
②	✗ 고정 상징 대입 — 이 글의 매듭은 풀어 다음 쓰임을 남긴 행동과 연결된다.
③	✗ 처음·나중 기준 혼동 — 끝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끊지 않고 푼다.
④	✓ 「나는 아버지의 느린 손이 무엇을 남기고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제목의 대상과 행동을 작품에 나타난 생각의 변화에 연결했다.

연결 개념 **E10** (24~25쪽)

Q34 해설

정답 ④

①	✗ 생각·선택 불일치 — 다음 쓰임을 생각해도 끈을 자르는 선택은 중심 의미를 이어 가지 못한다.
②	✗ 행동·생각 불일치 — 끈을 보존하는 행동에 처음의 속도 기준만 붙여 중심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③	✗ 중심 변화 뒤집기 — 속도만 앞세우던 처음의 태도로 돌아간다.
④	✓ 「풀린 끈을 상자 옆에 내려놓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의 느린 손이 무엇을 남기고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끈의 다음 쓰임을 남긴다는 판단을 행동으로 이어 간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 **E09** (22~23쪽) · **E10** (24~25쪽)

종합 B 지문 구조 한눈에

문단	겪은 일	생각·판단	달라진 점
(가)	다음 주 일정표에 일을 적어 칸을 채움	비어 있으면 뒤처져 보인다고 여김	처음 판단: 채운 모습으로 안심함
(나)	일이 취소된 칸에 적었다 지우기를 되풀이함	쉴 수 있어도 칸부터 메우려 함	기존 태도의 문제를 겪음
(다)	펜을 놓고 창문을 열어 가지를 봄	자기 눈이 종이의 빈 곳에만 붙들렸음을 돌아봄	주변을 보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 감
(라)	앞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함	빈 시간도 하루의 일부이며 채운 모습만으로 가치를 정할 수 없다고 봄	필요한 일·약속은 유지하면서 판단을 바꿈
(마)	필요한 일을 적고 한 칸을 비워 둠	새 일을 적거나 쉬어 갈 수도 있다고 봄	빈 시간을 남기는 행동으로 이어짐

Q35 해설

정답 ①

①	✓ 「그래도 칸이 채워지면 적어도 뒤처져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비어 있으면 하루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 같아 불편해했다.
②	✗ 개인 반응의 일반화 — 글쓴이 자신의 불편함을 밝힐 뿐이다.
③	✗ 실제 필요·겉모습 기준 혼동 — 필요하지 않은 일까지 적어 채운 모습으로 안심했다.
④	✗ 처음·끝 태도 뒤바꿈 —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은 일도 적어 넣었다.

연결 개념 **E04** (7~8쪽) · **E08** (16~18쪽)

Q36 해설

정답 ②

①	✗ 대상 변화·인식의 변화 혼동 — 뒤에서는 채운 모습만으로 하루를 평가하지 않는다.
②	✓ 「그 한동안은 무언가를 끝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했다.」 풍경에 주목한 경험이 뒤의 판단 변화로 이어진다.
③	✗ 개인 경험의 일반화 — 자신의 시선이 일정표에 붙들렸던 일을 돌아본다.
④	✗ 자유 구성·내용 단절 혼동 — 일정표만 보던 눈이 주변을 보면서 빈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연결 개념 **E05** (12~13쪽) · **E06** (13~15쪽) · **E08** (16~18쪽)

Q37 해설

정답 ③

①	✗ 회상·생각 진술 혼동 — 빈 시간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생각 자체를 말한다.
②	✗ 직접·간접 뒤바꿈 — 빈 시간의 의미를 문장으로 직접 밝힌다.
③	✓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내 하루의 일부였다.」 쉬는 시간도 하루의 일부라는 판단을 문장으로 분명히 밝힌다.
④	✗ 자기 서술·생각 기능 혼동 — 내 하루의 일부라는 의미 판단이 들어 있다.

연결 개념 **E09** (22~23쪽)

Q38 해설

정답 ①

①	✓ 「그러고는 남은 칸 하나를 비워 두었다.」 필요한 일을 적으면서 한 칸을 비웠다는 두 행동을 함께 읽는다.
②	✗ 간접적 제시·의미 단절 — 필요한 일을 적고 한 칸을 비운 두 행동이 앞의 깨달음을 실천한다.
③	✗ 처음·끝 태도 뒤바꿈 — 끝에서는 빈 칸을 남긴다.
④	✗ 부분 변화의 일반화 — 해야 할 일과 약속은 지키려 한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 **E09** (22~23쪽) · **E10** (24~25쪽)

Q39 해설

정답 ③

①	○ 적절함 — 범위 안 판단 — 그 경험 뒤에 빈 시간의 뜻을 다시 생각한다.
②	○ 적절함 — 범위 안 판단 — 처음의 불편함과 칸을 채운 행동에 근거가 있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작품과도 어긋난다. ← 정답
④	○ 적절함 — 범위 안 판단 — 필요한 일을 적고 한 칸을 비우는 행동이 모두 제시된다.

연결 개념 **E11** (26~27쪽)

Q40 해설

예시 답안

요소	답
처음의 의미	채워야 할 부족함이나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빈 시간이다.
끝의 의미	쉬어 가며 주변과 자신을 돌아볼 여지로 남기는 시간이다.
행동의 대비·효과	처음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적어 채운 행동과 끝에는 필요한 일을 적으면서도 한 칸을 남긴 행동을 대비하여, 빈 시간을 쉬어 갈 여지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도드라지게 한다.

근거와 연결 「나는 빈 곳을 지우지 않고 일정표를 덮었다.」 빈 칸을 채우던 행동과 남기는 행동을 대비해 제목에 모인 의미의 변화를 읽는다.

채점 요소

요소	인정 범위·배점
처음의 의미	불편함·부족함·뒤처짐과 채우려는 태도 중 문맥에 맞는 의미 1점
끝의 의미	쉬어 갈 여지나 비워 둘 시간의 가치 1점
행동의 대비·효과	처음의 채움과 끝의 남김을 모두 근거로, 쉬어 갈 여지를 인정하는 변화를 연결 1점. 효과 문장 틀과 같은 뜻의 표현도 인정

같은 뜻을 지문 근거에 맞게 쓴 답도 인정합니다. 요구한 경험·생각·효과를 빠뜨리거나 글에 없는 사건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개념 **E08** (16~18쪽) · **E09** (22~23쪽) · **E10** (24~25쪽)